

투데이

광주시 3D 컨버팅 사업 청산 배경과 전망

속도기준 충족 못해 결국 사업 중단

美측에 위약금 920만달러 청구...거부땀 법적 소송

광주시가 추진해온 3D컨버팅분야 한미합작투자사업이 결국 무산됨에 따라 투자금 회수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는 16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D컨버팅사업 중단 ▲위약금(penalty) 920만 달러 청구를 통한 기존 투자금 환수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최종 테스트 어떻게 진행됐나=미국 LA현지의 인스파이어사에서 진행된 테스트에는 한·미 양측에서 각각 4명씩 8명의 기술진이 참여했다. 지난해 8월 광주에서 시연 했던 3분 분량의 샘플 영상 중 55초 분량과, 광주시에서 새로 준비한 3분 분량의 샘플 영상 중 65초 분량 등 총 2분 분량의 2D영상들이 사용됐다. 테스트는 24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으며, 기술자 1명당 1시간에 평균 2.93초 분량의

3D영상물을 만들어냈다. 이는 지난해 8월 1시간에 0.5초 분량의 3D변환 영상물을 만들어냈던 것에 비해 5.8배가 빨라진 것이지만 최종 계약기준인 5초에는 2.1초를 밑도는 수준이다.

이 사업을 추진한 김병술 겸코 대표이사는 "3D변환 영상물의 전체적인 품질은 지난해 테스트 당시보다 나아지는 등 아쉬운 점은 있지만 중요한 속도부분에서 계약에 정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판단, 최종 테스트가 실패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풀이이할 과제=광주시는 미국 측 사업파트너가 최종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위약금 청구 등 기존 투자금 환수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근거는 최종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조건'의 불충족에 대한 위약금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측 파트너사인 K2AM은 최종 테스트에 실패할 경우 계약금액인 1100만 달러에서 광주시가 미리 지급한 650만 달러를 뺀 잔금의 2배에 해당하는 920만 달러를 배상토록 돼 있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1차 조치로 K2AM측에 위약금 920만 달러를 청구하기로 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엔 법적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 등을 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또, 내부적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시는 우선 감사원의 처분결론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병술 겸코 대표에 대해서는 이미 재산을 압류 했으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지표기자lucky@kwangju.co.kr

한미합작사업추진 일지
2010년 10월 27일 광주시 K2와 양해각서 체결
2011년 1월 13일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GCIC)설립
2011년 2월 15일 한미합작 캠프 설립
2011년 6월 30일 광주시, 광주진흥원에 100억원 출연해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에 출자
2011년 7월 7일 K2에 5차례에 걸쳐 선행 투자비 명목 등 560만달러 송금
2011년 9월 30일 광주시, K2에 650만달러 반환청구
2011년 12월 27일 K2와 최종계약(면책계약) 체결
2012년 4월 감사원 K2에 기술검증 없이 650만달러 송금된 사실 밝혀 뒤 검찰 수사 의뢰
2012년 9월 12~14일 미국 LA 최종 테스트 실시 결과론
(자료:광주시)



“캠코 사업 중단하겠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16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D컨버팅 분야 한미합작사업 중단 및 투자금 회수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U대회 선수촌 19일 건립 기공식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선수촌 건립 기공식이 오는 19일 오후 5시 화동동 공사 현장에서 열린다. 이날 기공식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조방 관계자, 입주예정자 등이 참석하며 행사가 끝나면 현장 음악회가 진행된다. 재건축을 통해 U대회 선수촌 아파트로 사용될 광주 유니버시아드 힐스테이트는 15만6312㎡의 부지에 지상

15~33층으로 건립되며, 25평형과 34평형, 40평형으로 조성된다. 현재 기존 아파트는 모두 철거된 상태다. 선수촌 아파트는 준공 후 2015년 7월로 예정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선수촌으로 활용되며, 리모델링을 거쳐 2015년 하반기부터 입주자가 시작된다. /홍행기자 redplane@

무등산 지양봉·인양봉

내달 7일 시민에 개방

광주 무등산 정상에 다음달 7일 일반 시민에게 개방된다. 개방 지점은 미사일 기지가 있는 천왕봉(해발 1187m) 바로 아래인 해발 1180m의 지양봉과 인양봉 주변으로, 사실상 정상에 해당하는 곳이다. 개방노선은 서석대에서 부대 후문을 통과, 인양봉과 지양봉을 거쳐 부대 정문으로 나오는 0.9 km 코스다.

시민 누구나 개방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무등산 정상은 군부대 영내이므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무등산 정상은 지난 2010년 5월, 45년 만에 처음 개방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일반에 개방됐으며 물 들어서는 세번째다. 광주시는 개방 당일 장물제 일대에서 유명 가수 초청 산상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홍행기자 redplane@

집값보다 비싼 전셋값

광주 광산 우산동 시영1차·송정동 명지2차 첫 역전

아파트 시장 곳곳에서 '배보다 배꼽이 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셋값이 꾸준히 오르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시장에서 매매가가 추월하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하고 세입자는 전세로만 살리는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이 같은 황당한 가격 역전 현상을 만들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시영1차 50㎡ 8층은 두 달 전 5500만원에 팔렸다. 하지만 전세 실거래가는 12층 6000만원, 15층 5500만원으로 매매가와 같거나 오

히려 더 높았다. 지난 6월 광산구 송정동 명지2차에서는 85㎡ 7층 매매가격이 같은 달 신고된 1층 매매가격과 똑같은 1억2500만원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아파트의 전세가 역전 현상은 전세 수요가 꾸준한 반면 공급은 크게 모자라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구 화정주공 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이동이 광주의 전·월세 불균형을 키웠다. 광산구 우산동 W공인 관계자는 "전세 물량이 워낙 모자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집주인으로서는 전세금을 받아도 이익을 벌

려도 얻을 수 없으니 월세로만 내놓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저금리 시대 여파로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 두드러졌다. 전세로만 살던 이대 전까지도 해도 8000만원에 불과하던 이 지역 아파트 전세가 가격이 최근 1억2000만원까지 급등하자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 일부가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국민은행 조사결과 8월 현재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 비율(전세가격/매매)은 광주 77.1%, 경북 74.3%, 대구 72.7%, 울산 7.3%, 전남 71.6%, 전북 71.2% 등으로 전국 평균 61.7%를 크게 웃돌고 있다. /\*박지표기자 jwpark@

광주·목포 대기오염 심하다

에어로졸 두께 0.47...교토·워싱턴보다 훨씬 높아

광주와 목포지역의 대기 중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인 '에어로졸'(Aerosol)이 미국이나 일본 주요 도시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로졸은 대기 중의 고체나 액체 입자물질을 통칭하는 것으로 대기오염의 척도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6일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함께 지난 3~5월 전국 21개 지역의 에어로졸 두께를 분석한 결과 평균 광학두께가 0.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교토 0.36, 미국 워싱턴 0.32에 비해 최대 50% 이상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0.53으로 가장

높고 백령도가 0.40으로 가장 낮았다. 광주·목포·부산·군산(0.47)도 대기오염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강릉(0.42), 광주(0.45)는 에어로졸이 비교적 적었다. 에어로졸 광학두께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에어로졸에 의해 얼마나 산란 또는 흡수되는지를 나타내는데, 에어로졸이 많을수록 값이 크다. 청정지역은 0.02, 대기오염이 심한 중국 베이징은 0.8 수준이고, 황사나 산불이 발생한 경우 3~5까지 올라간다고 환경과학원은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檢 공천헌금 4명 기소...“박지원 대표에 직접 부탁”

민주 ‘사실 호도’...중수부, 당의 명예 훼손’ 반박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4일 민주통합당 공천을 약속하며 40여여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라디오21' 편집부장 양경숙(5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양씨에게 공천을 부탁하고 돈을 건넨 강서시살상공판단 이사장 이양호(56·구속)씨, H세무법인 대표 이규섭(57·구속)씨, 부산지역 시정개발 F사대표 정일수(53·구속)씨도 함께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이양호씨로부터 10억9000만원, 이규섭씨 18억원, 정씨 12억원 등 총 40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중간수사결과에 따르면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양씨를 만난 자리에서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모바일 선거인단 모집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양씨는 상당한 경비를 들여 모바일 선거인을 다수 모집했고 그 현황을 수시로 박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 검찰은 이를 4명으로부터 "지난 3월15일 박지원 대표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직접 부탁했다"는 진술을 받아 냈다. 검찰은 박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면조사에서 "이씨 등이 공천을 신청한 것은 일일지만 공천을 약속한 적은 없고 양씨가

이들에게서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씨가 40여여원 중 20여여원을 선거관련 사업에, 10여여원을 모바일 경선단 모집에, 5여여원을 라디오21 등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나머지 6여여원이 자금세탁을 통해 현금화된 사실을 밝혀내고 정국원 유입 여부를 추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양씨가 유령여중 중 5월29일 일시귀국했다 이를 후에 다시 출국했는데 하루 만에 많은 선거인단을 모집했다는 것은 귀신이 곡지 못할 것"이라며 "양씨의 진술이 극히 진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중수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2012년도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 하반기 신규지원 안내 공고

지역별 전략산업(특화분야)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역소계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9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지원내용
1. 지원대상
2. 지원별 지원분야
3. 지원별 전략산업(특화분야)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자유롭게 도출하여 신청

Table with 2 columns: 지역 (Region) and 전략산업(특화분야) (Strategic Industry/Specialized Field). Rows include Gyeonggi, Gyeongju, Gwangju, Daegu, Daejeon, Busan, Ulsan, Incheon, Jeonnam, Jeonbuk, Chungcheong, and Jeju.

- 3. 지원유형: 자유공모형
4. 지원내역
5. 신청지역: 자유공모형
6. 지원유형: 자유공모형
7. 지원내역
8. 신청지역: 자유공모형

Table with 4 columns: 참여기업 수 (Number of participating companies),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Participating company types and composition),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Government grant support ratio), 민간부담금 한도비율 (Private contribution limit ratio).

7. 기술로 납부
연차 또는 최종평가에서 평가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기술료를 납부

Table with 2 columns: 참여기업 유형 (Participating company types) and 정부지원비율 (Government support ratio).

II.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 1. 지원절차 및 일정
2. 신청서 교부 및 접수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Table with 3 columns: 평가항목 (Evaluation items), 세부 항목 (Detailed items), 지표 (Indicators).

- 4. 관련 법령 및 규정
5. 신청서 접수처, 양식 등은 해당 지역의 지역산업평가단 홈페이지 참조

Table with 4 columns: 지역 (Region), 기관명 (Agency name), 주소(우편번호) (Address/Postcode), 전화번호 (Phone number), 홈페이지 (Homepage).

Table with 4 columns: 지역 (Region), 기관명 (Agency name), 주소(우편번호) (Address/Postcode), 전화번호 (Phone number), 홈페이지 (Homepage).